



# 해외기술규제대응

## 「TBT 중앙사무국」 출범

■ 해외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「TBT 중앙사무국」이 9월 29일(월)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을 비롯하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타미 오버비(Tamy Overby) 대표,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장자크 그로하(Jean-Jacques Grauhar) 및 경제단체, 수출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하였다.

\* 무역기술장벽(TBT, Technical Barriers to Trade) :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, 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말함

\* 주요 참석인사 : 주한미국상공회의소 Tamy Overby 대표,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Jean-Jacques Grrauhar 소장, 한국무역협회, KOTRA 등 경제단체 대표, (주)메디슨 최재범 대표, 랑세스 코리아 고제웅 대표 등 업계 인사, 유관기관장, 산학 전문가

■ 최근 관세나 수량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무역장벽들은 점차 사라져가는 대신에, 소비자안전, 에너지, 환경 등을 중심으로 매년 1000여건 이상의

기술규제가 만들어지고 있고,

- 국가별로 수만 종의 기술규제가 있어 수출기업들이 관련규제들을 모두 숙지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기업들의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.

### 【피해사례】

\* 식품의 방사선처리 미표시로 영국에서 수입중지 조치('05, A사)

\* 호주 수출시 에어컨 에너지등급 오기에 따라 약 20억원 손실('06, B사)

\* 철제강관의 강제인증 취득지연으로 대인니 수출 차질('08, C사)

■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되었던 TBT 업무를 「TBT 중앙사무국」으로 단일화하여 출범시킴으로써, WTO, FTA 기술장벽 대응 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, 종합적인 지원서비스체제를 갖추게 되었다.

- [www.knowTBT.kr](http://www.knowTBT.kr)은 첨단 검색기능을 구현하는 포털사이트로서 기업의 정보접근이 용이하고,

특히, 2만여 개 수출업체에게 관련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, 또한 정보를 받기를 희망하는 여타 기업들이 포털사이트에 등록하면 된다.

- 신규 규제에 대하여 신속히 그리고 해당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국가별/업종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, TBT신문고 및 온라인전문가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\* TBT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전자 등 10개 분야 167명의 TBT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, 위원들에게 장관명의로 위촉장을 수여하였음

- 기존 규제에 대하여는 연구와 분석기관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, 운영함에 따라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며, 아울러 현장점검반도 가동하여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.

- 또한, 외국인 투자가 용이하도록 국내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, 규제장벽의 문턱을 낮추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하였다.

- 19개 부처가 운영중인 19,000여종의 국내기술규제에 대해서도 국제표준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금년내에 구축하여 국내 기술규제의 글로벌스탠더드화도 촉진할 예정이다.

- 임채민 차관은 격려사에서, 「TBT 중앙사무국」은 참여 전문가와 서비스가능한 국가와 업종을 확대하는 등 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수출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### TBT 중앙사무국 출범 행사일정

- ▶ 일 시 : 2008년 9월 29일(월) 10:30~11:45
- ▶ 장 소 :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중강당
- ▶ 행사일정

	일 시	행사내용	비 고
사전 행사	10:30~10:33	- 행사개회 선언 및 개요 설명	사회자
	10:33~10:43	- TBT 운영·실무위원 위촉장 수여	기술표준원장
	10:43~10:55	- 특별세미나(국제무역 환경 변화와 TBT 중앙사무국의 역할)	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
출범 행사	11:00~11:05	- 오프닝 및 국민의례	사회자
	11:05~11:10	- 중앙사무국 경과 보고	기술규제대응과장
	11:10~11:15	- 홍보동영상 상영	
	11:15~11:25	- 포털시스템 시연회	
	11:25~11:30	- 격려사	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
	11:30~11:35	- 외부인사 말씀	(주)메디슨 대표 최재범
	11:35~11:40	- 외부인사 말씀	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Ms. Overby
	11:40~11:45	- 현판 제막식	차관 및 외빈

### TBT 중앙사무국 설립 및 운영계획

#### 1. 배경

- 우리나라는 95년 WTO 출범 후, 교역량 확대, 교역국 다변화를 통하여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견인해왔으나,

- 최근 관세 및 수량제한 등 기존 무역장벽은 철폐·완화되는 반면에 무역기술장벽(TBT)이 통상 현안의 핵심으로 대두되면서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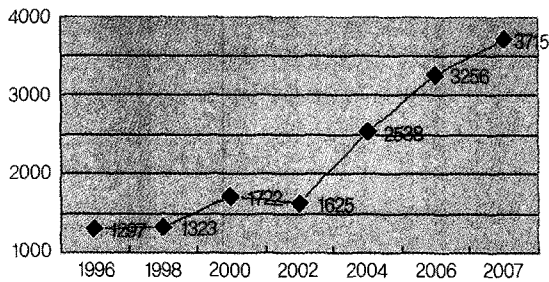
\* 무역기술장벽(TBT, Technical barriers to trade) :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, 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말함

- 무역규모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는 효율성과 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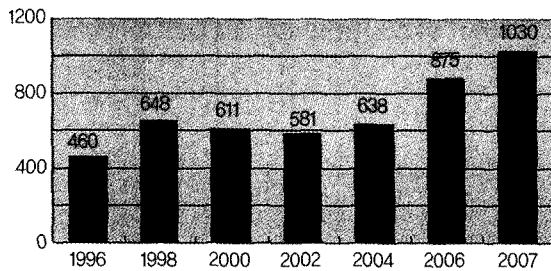
효성이 조화된 TBT 대응인프라구축이 시급

- \* 선진국 중심으로 보건·안전·환경 관련 기술 규정, 표준이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무역기술장벽이 급증
- 〈예〉 에너지효율, 완구 안전성 기준 강화, EU의 RoHS(유해물질제한지침), REACH(신화학물질관리제도) 등

우리나라의 수출량(억\$)



WTO/TBT 통보현황(건)



## 2. TBT 대응현황 및 문제점

- 신규 또는 강화되는 연간 1000건 이상의 해외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미숙이 수출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
- 대외요인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가중 호소 및 정보부족 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 요구 점증

## 해외 TBT로 인한 수출 피해 및 애로사례

- 식품의 방사선처리 미표시로 영국에서 수입중지 조처('05, A사)
- 호주 수출시 에어컨 에너지등급 오기에 따라 약 20억원 손실('06, B사)
- 철제강판의 강제인증 취득지연으로 대인니 수출 차질('08, C사)
- EU REACH(신화학물질관리제도, '07.6 발효)는 '06년 대EU 수출액 485억불 중 67%(화학: 16억불, 전자: 202억불, 자동차: 101억불)에 영향을 주며, 수출중단 사태발생 등 우려
- EU RoHS(전기·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 제한지침)의 경우, 중소 부품업체의 애로 극심
- 중국 강제인증제도(CCC) 대상품목의 지속적인 확대(144품목→157품목)로 기업부담 가중

- 기술규제대응을 총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체계 및 제도 미비

- 부처별 상이한 기술규제 행정관행으로 인한 대외 신인도 저하, 단일창구 부재에 대한 외국의 불만 제기, 시의적절한 대응 한계 등

## 선진국 사례

- 미국: 상무성 소속 Technical Compliance Center(40명)에서 해외기술규제, 업계의 문제점 및 현황 모니터링, USTR(미국무역대표부)과의 협력을 통한 국외 도모
- EU: EC 집행위 산업국 소속의 기술규제팀(20명)에서 회원국에 대한 의견조정 총괄기구, 대외창구로서 기술규제 보급 및 업계지원 역할 수행
- 중국: 국가품질검사총국(AQSIQ, Administration of the People's Republic of China for Quality Supervision and Inspection and Quarantine)에서 기술규제 업무 총괄
- 일본: 경제산업성 기술규제표준과에서 총괄·대응하며, 일본무역진흥기구 비즈니스서비스센터와 협력하여 수출기업 지원업무 수행

## 3. TBT 중앙사무국의 출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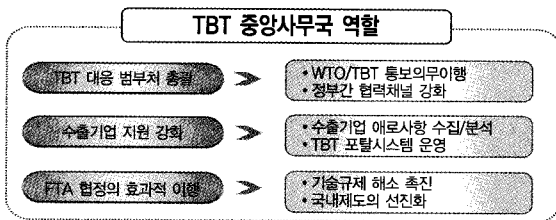
### ■ 경 위

- WTO는 교역과 관련된 기술규정의 제·개정 시 회

원국에 통보 및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국간 TBT 정보교환을 위한 질의처 운영을 의무화('06.11)

- \* 기표원(공산품), 농식품부(농·수산물), 복지부(식의약품·화장품) 3개 질의처가 운영 중이며, 신규 기술규정의 통보는 외통부에서 총괄
- 한-미 FTA 협상시 TBT 업무조정과 대외창구 단일화를 위하여 기표원에 중앙사무국 설치·운영을 합의('07.4)
- \* 캐나다, 멕시코, EU, ASEAN 등과의 FTA에서도 동 내용 포함
- \* OECD “한국의 규제개혁보고서”에서 아국의 대외신뢰도 제고를 위해 TBT 중앙사무국 설치 권고('07.3) 및 국무조정실에 이행계획 제출('08.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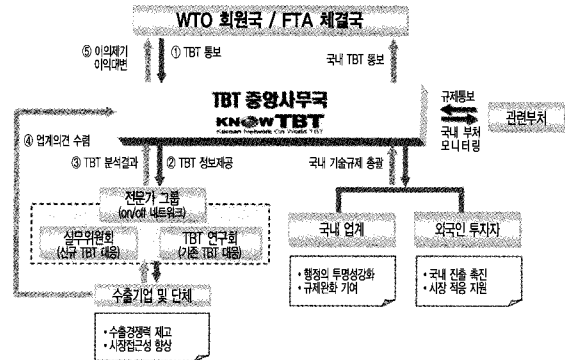
■ 역할 및 추진체계



- 국내 관료부처의 WTO/TBT 및 FTA/TBT 협정 이행 모니터링
  - 법령 제·개정 현황, 의견수렴절차, 통보여부 모니터링 및 협정이행을 촉구
- WTO 회원국 및 FTA 체결국간 기술규정 제·개정 내용의 통보, 질의회신 및 정보공유를 위한 일원화된 대외창구
  - 양자간 대화채널 주관 및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한 국내적 의견조정 역할
- 해외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신속한 정보전달, 영향

분석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수출업체 지원 및 민·관 연계망의 구심 역할

- 「기술규제 포탈시스템」을 구축하여 정보접근성 향상, 양질의 정보제공
- 신규 해외기술규제(연간 1000건 이상)의 사전대응 강화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애로 해소 등 원스톱 지원서비스 구현
  - \* 통보문 대응의 피드백체제 확보 : (정부)규제의 내용영향분석 ⇒ (기업)대응방안 제시 ⇒ (정부)상대국에 시정촉구, 여타국과 공동대응
- 기존 해외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연계한 컨설팅서비스를 실시하고, 현장점검반을 가동하여 수출현장의 애로발굴 및 신속한 해결



4. 기대 효과

- 기술규제 행정관행의 투명성확보로 국내 제도·정책의 선진화 유도
  - 국제통상규범을 준수함으로써 무역분쟁의 사전예방 및 기업하기 좋은 통상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 기여
- TBT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해소, 수출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지원